

죽음에서 살아나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3,4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곧 죽은 자들을 위한 미래의 삶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의 영감을 받은 모든 저자들은 구세주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인류를 부르실 “아침”이 되면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은 더 이상 땅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처럼 무덤에 누워 있으며, 사망이 그들을 삼키리니, 아침에 의인들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시편 49:14). “아침”은 의인들에게 통치권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무덤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으며, 신약의 저자들은 미래의 삶과 축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16-18

우리 주님의 부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자기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19,20).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 후의 부활을 예언하시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2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생명 차원, 즉 신성(神性)으로의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시니라.” 에베소서 1:21-23; 골로새서 1:18

비록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행위에 담긴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성경의 수많은 확신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는 동역자로서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데 있어 우리의 신실함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이 “참으로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므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으며, 그것들을 흠더미와 같이 여깁니다.” (빌립보서 3:8).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예수]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어떻게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함이라.” 빌립보서 3:10,11

우리가 매일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로마서 12:1).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백성들을 강제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보이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정화의 과정이 수반할 수 있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사고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6,7

바울의 논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28절에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부활에 관한 완전한 논의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교리의 일부임을 증명하며,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는 무가치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12-19). 둘째로, 교리를

증명한 후, 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보여 주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 그는 이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과 그 타당성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21).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으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완전함에 이르는 완전한 부활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의 왕국 통치 아래에서 제공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생은 오직 왕국의 의로운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합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같은 마음의 성품을 기르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인간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 (고린도전서 15:22). 죽음에서 깨어난 후 성품과 신성한

법에 대한 순종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이 약속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뛰어나신 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과 함께 희생으로 생명을 바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첫 번째 부활”에서 교회를 위해 그 능력을 더욱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6

건강, 안락, 명성, 혹은 세상의 기쁨과 같은 현재의 모든 혜택은 영적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토록 높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을 생각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말했듯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7). 우리가 신실하다면, 첫 부활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21). 그러므로 신실한 교회의 장차 상속받을 유산은 영광, 곧 “더 뛰어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10

가벼운 고난

이 주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큰 무게를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17,18). 여기서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친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속죄 제물로 세우사,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이 때에 그 의를 나타내시되, 곧 그분께서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25,26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 따라야 할 순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5:23). 첫 열매의 반열, 곧 그리스도의 상징적 몸의 신실한 구성원들은 순서와 지위 면에서 가장 먼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12,27). 현세에서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신실하다면, 그들은 “첫 열매” 반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음의 모양에 함께 심겨졌으면, 그의 부활의 모양에도 함께 하리라.” 로마서 6:3-5

첫 열매의 반열에 들라는 부르심은 수 세기 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첫 번째”이시며, 첫 열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십니다. 그 이후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믿음으로 구속주의 희생에 동참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로마서 8:17; 갈라디아서 3:29

하나님의 위로

첫 열매의 반열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귀한 약속들에 의해 이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며,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아노라.” (로마서 6:8,9).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 능력은 대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 능력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고, 지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경험으로부터 격리시키지도 않으며, 이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면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12-16). 오히려 그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돕습니다. 마태복음 24:13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이자 유산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 그들이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13, 6). 이 약속들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4-16; 요한일서 3:2

첫 열매인 그리스도 계급의 머리와 몸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질 미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과 불의인 모두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15).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두기까지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24-26

다시 일어남 - 회복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등장합니다. 이는 “다시 일어남”, “회복”, “일으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anastasis)’를 번역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나 그 후 다시 죽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깨어남을 가리킬 때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나사로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경우로, 이 경우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나 그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 ‘부활(resurrection)’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1을 참조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부활[아나스타시스]의 기회를 보장해 주었습니다(디모데전서 2:5, 6). 부활을 단지 다시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완전함을 상실하고 도덕적 타락, 질병, 슬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향 나선형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죽으셨으며, 따라서 부활에 대한 약속은 잃어버린 후 구속된 것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9:10

회복이나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anastasis)'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얼마나 멀리 타락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구속주께서 인류를 위해 확보해 주신 완전한 회복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생명 자체가 상실되었지만, 그와 함께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타락이 수반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소멸, 즉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그에 따른 부활을 통해, 메시아 왕국 시대에 머리와 몸인 그리스도 계급의 의로운 통치 아래, 인류 가족 중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이들은 완전함의 숭고한 경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완전함으로의 귀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인류 세계에 있어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4, 6). 그러나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정신적·도덕적 완전함에 강제로 도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함에 이르는 부활과 관련된 일들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이를 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 할 일을 힘써 하라. 네가 가는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느니라” “죽음에는 너를 기억할 자가 없나니, 무덤에서 누가 네게 감사하리요?” 전도서 9:10; 시편 6:5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모든 이가 죽은 자의 부활 때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확신입니까! 깨어날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며, 각기 다른 조건 하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죽기까지 신실한 온전히 전념한 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천상의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신성한 본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베드로후서 1:4

나머지 인류는 심판, 즉 시험 기간으로 깨어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일어나 회복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천년 심판의 날에 주어진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이시며 몸인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야와 황무지가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여 장미처럼 꽃을 피우리라. ...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리라. ... 거기에 큰 길이 있고,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리라. ... 여호와와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에 이르리니, 그들의 머리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라.” 이사야 35:1, 5, 8, 10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은 지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함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다시금 인류를 위한 기쁨 넘치는 보금자리이자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인류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에 완전함의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사탄의 권세와 그 눈멀게 하는 영향력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1-3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궁극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모든 무지와 편견, 미신은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주에 대한 참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사야 11:9). 사람들의 육체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신 또한 죄의 속박에서 마찬가지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목표이자 위대한 사역이다. 왕국이 세워지면 평화와 기쁨, 생명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에는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았던 모든 것들의 종결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에게,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11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된 것이더라.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울부짖음도 없으며,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1-5

인류는 다시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영원히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훈을 온전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30,31

사랑은 인류가 배워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10). 완전한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 성품의 표징은 바로 완전한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온 인류의 형제애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슬퍼하는 그의 누이 마르다를 위로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은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3-26). 우리는 이 진심 어린 말씀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